



## 기술표준원 news plus+

### 승강기 안전기준 대폭 강화

기술표준원은승강기문 이탈에 의한 추락사고및 자동차용승강기틈새추락등 이용자의부주의등에 의한 사고예방을위하여관련 안전기준을대폭 강화하였다.

+ 승강기검사기준개정고시(7.9.10)

기술표준원은안전사고의사전 예방을위하여최근 7년간승강기사고유형분석을 통하여안전위해성이

높은요소에 대하여단계적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 안전위해성이높으며조속한조치가가능한요소를우선 개선

금번에개정고시된 내용은문 이탈에 의한 추락및 자동차용승강기틈새추락등 안전위해성이가장 높은요소이다.

승강기문 안전기준은“ 견고하게설치되어야한다.”는 내용에서실체충돌을감안하여중학생2인이 충돌하여부딪혔을때(450J) 견디도록한충강화 되었다.

\* 450J: 중학생2인(약60kg) 이 약 시속10km로 충돌할때 의에너지

\* 일본의경우정량화된규정이없으며, 유럽도실체충격상 황을고려한보다강화된기준안마련을검토중

· 96.12.31 이전 건축허가된 자동차용 승강기 **특** 새 추락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호판설치를 의무화하였다.

· 현재 97.1.1 이후 건축허가된 자동차용 승강기의 경우 보호판설치가 의무화

아울러 승강기 문키의 통일 및 키 사용 주의 사항 표시 부착을 의무화하여 갑힘 고장 발생 시 신속한 구출과 부주의한 키 사용으로 인한 추락사고의 사전 예방이 가능토록 하였다.

· 현재 비상시 소방관이 20~30여 가지의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현장 출동하여 조속한 구출 작업에 어려움 발생

기술 표준원은 금번 승강기 안전기준의 강화 및 안전위해요소에 대한 단계적 개선으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이 유럽 수준 이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사고 현장>

### ISO 소비자정책위 의장 연임

김재욱 '소비자문제 풀기' 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표가 지난 9.22(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사회에서 8개 이사국으로부터 단장 임치의 지지를 얻어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 의장으로 연임되어 오는 2009년까지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국제표준화기구)

COPOLCO : Committee on Consumer Policy(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는 ISO의 3대 정책위원회(적합성평가, 개도국, 소비자)와 나로미국, 영국, 독일 등 99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ISO에서 표준개발 시 소비자의 참여 확대와 소비자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수단들이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 5월에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차기 표준화 이슈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어 국제 소비자 표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술표준원장은 지난 9.19-21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ISO 총회 기간 중 이란 표준청과 우크라이나 국립표준원과 각각 표준 및 인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시판 예초기 17종 중 5종 안전 결함

시판 중인 휴대용 예초기 17종을 조사(기술표준원)한 결과, KPS 안전인증 받은 제품은 5개 모델이 충족 시

협에서날이깨지는데등 안전기준에부적합한것으로 나타나소비자들의각별한의가요구되고있다. 또, 조사대상7개 모델중 11개 모델은경고문구, 제조국가·회사이름등 표시사항을표기하지않았거나 표시기준에부적합, 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제공을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휴대용 예초기구입시주의사항및 안전사용요령을공개하였다. 휴대용예초기구입시반드시안전인증(KPS)마크를 확인해야하며, 날두께가상대적으로두껍고날끝이 둥근 모양인 제품을선택해야안전사고를예방할수 있다. 또, 예초기사용시반드시' 취급사유의사항을 확인하고안면보호구등 보호장구를착용해야하며, 잔디속이물질제거· 용도외 사용금지· 안전장치 부착· 연결판점검등안전수칙을꼭지켜야한다.

기술표준원이지난6년간 휴대용 예초기안전사고 총 271건을분석한결과, 예초기날이돌에부딪쳐 깨진돌이나날로인한안전사고가86건으로전체 사고건수의68.6%를 차지했다.

<연도별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1-8월	계
건수	31	38	26	55	13	54	54	271
(%)	(11.4)	(14.1)	(9.6)	(20.3)	(4.8)	(19.9)	(19.9)	(100)

<유해 원인별 사고현황> (단위: 건, %)

유해원인	날카로운물체 깨어/뺏겨질, 충돌/충격		끼임, 손저, 이물질흡입 등		기타	계
	건수	(%)	건수	(%)		
	196	(68.6)	48	(17.7)	37	271
					(13.7)	(100)

\* 출처: 한국소비자원(07년 유해원인은추정임)

기술표준원은이번조사결과를토대로, KPS 안전인

증을받지않은5개 제품, 「검마크가있으나안전 인증기준에부적합한4개 제품등의개선·수거·파기등행정조치를완할시·도에요청할계획이다.

\* 07.3.24 이후「검마크에서「KPS」마크로변경됨

한편, 기술표준원은「비자안전사고예방을해9월 12일부터3일간' 안전한공산품유통촉진캠페인'을 펼쳤다. 지난월에이어두번째로최소한이 번 행사는이마트·농협유통 등 전국16개 매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안전마크표시제품판매 확인 및 안전관리교육등을 실시하였다.



### 환경표준 국제 세미나

국제적으로환경규제가강화·확산되고환경표준 제정 움직임이활발한가운데, 국내기업들이관련 최신정보를빠르게습득하고환경규제대응방안을 모색할수 있는자리가마련됐다.

기술표준원은한국전자산업진흥회(KEA)등으로환경표준화동향정보및 국가표준에서의환경성도입 정책등을소개하는국제세미나를9월 13일 섬유산업연합회에서개최하였다.

EU에서 시작된국제환경규제는미국·일본·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다. 특히, 올해월에는 개별 화학물질에대한 유해성정보를등록해야 하는신화학물질관리제(REACH)가 발효, 국내수출기업들이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총 수출의37%를 차지하는전기전자산업

의 경우, 환경규제주요대상지역으로의 수출규모가 약 63%에 달해 국제환경규제는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IEC/TC111 국제전기기술위원회 / 전기전자제품환경표준) 의장 윌리 고이치씨가 직접 전기전자제품의 국제환경표준에 관한 최신 동향을 발표, 많은 관심을 모았다.

※ IEC/TC111 : 전기전자제품의 환경표준(물질선택 및 제품의 환경성 정보 공개, 에코디자인 및 유해물질 시험 방법 등)을 제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 전문위원회의 하나임

또, EU REACH에 대응한 선진 사례인 후지필름 화학물질관리 프로그램(JAMP)이 소개됐으며, 우리나라의 KS 환경성도입정책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 JAMP(Japanese Article Management Promotion-consortium) :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주요 130여 개 기업들이 작년 9월 발족한 단체

기술표준원은 지금까지의 표준은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 보건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왔으나, 환경성이 가미된 앞으로의 표준은 표준 수요자인 기업들에게 표준을 통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우리 산업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 한국산업표준(KS) 용어 실시간 검색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분야별 표준용어 11만 개를 인터넷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표준원은 산업현장에서 표준용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07.7월 착수한 KS 용어 DB 구축 작업을 완료하고 10.1(월)부터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구축한 KS 용어 DB는 22,190종(07.9말)의 KS 규격 중 764종에 기술된 112,000여 건의 용어를 명칭(한글, 영문), 정의, 관련 면(8,000여 건), 규격번호, 규격분류 등으로 구분하여 DB화하였다.

KS 용어는 '02년에 300여종, 59천여 건의 용어를 DB로 만들어 인터넷 서비스를 해 왔으나, 그 이후에 제 개정된 용어 DB는 구축되지 않아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KS 용어 DB를 재구축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공하므로 KS 규격에 정의되어 있는 최신 산업분야별 표준용어를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동일한 용어를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데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산업계·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올바른 표준용어 보급 확대를 통한 KS 사용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 나사, 전화, 종이, 책상, 의자, 플라스틱, 석유, 고무, 타이어 등)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표준 용어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최신 제정·개정 용어 규격을 지속적으로 DB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기술표준 2007. 10